



○어느 불교 해설자 화엄스님이 경내를 산책하자 신도들이 하나 둘 모여다. 이왕 모인 김에 기념촬영을 했다.

를 계속 가졌으면 부와 권력을 얻었겠지만 정신의 대자유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자유는 구도, 모든 새로움, 창조, 변화를 이룩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불교만큼 자유와 역동성을 풍부하게 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와 요즘 얘기되는 NGO라는 것은 성격이 닮아 있어요.

어느 시기에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힘과 변화를 바라는 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의 관계가 팽팽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워낙 어려운 시대를 겪다보니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고, 그러다보니 역동성, 변화하려는 힘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어요. 초근에야 우리 사회에 역동성이 보이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으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사회의 병' 치유 불자 앞장서야

"선수행은 정신문명 발전 동력"

이치는 연기법이야. 그러나 이웃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불교NGO라는 것도 특별한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웃과 함께 살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찰은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으니, 그 지역의 문화적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법회와 모임을 자주 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찾고 맡기는, 그런 일을 절에서 먼저 시작해야겠지요.

-21세기는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단의 극복이 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는 길에 분단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치유의 종교가 되어야 할 불교계의 관심은 너무 미미합니다. 분단의 고통을 어루만지기 위한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생각이 다른 외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누구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섭수와 절복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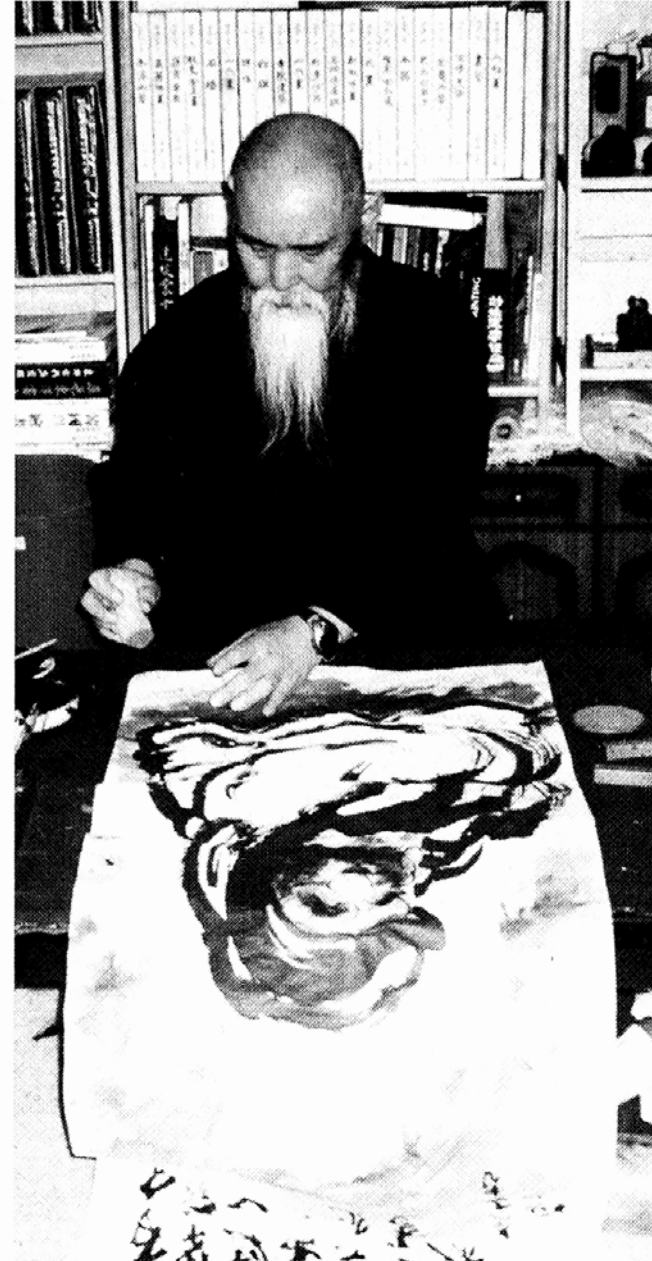
WOOD-SEAL (방부·방충·방염·방수)

오대산 상원사

- ◆ 목재사찰 통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떨림 방지)
- ◆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 ◆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투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 ◆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 ◆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 ◆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 ◆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
- ◆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회개미), 해충 침입방지
- ◆ 통기성(Breathing) 양호 - 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목구조주택 보수 문의 환영합니다.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38
TEL: 02)3474-6232(대)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lnd.co.kr



○지난 겨울 몸이 편치 않아 멀리 했던 붓을 다시 들었다. "진정한 예술은 부처님의 삶이겠지요." 요즘은 소림굴의 달마와 씨름한다.

만물에 불성이 깃들여 있다는 말인데, 이 말만들 인간의 중요성을 깨우친 말이 또 있을까요.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넘어서 서로의 불성을 북돋우는 것이잖아요. 실유불성이라는 가르침을 모르는 불자는 없는데,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름의 이치로 산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가족들 무사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전생에 쌓은 선연의 덕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불을 맞아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의욕이 생겨났을 겁니다. 저희 독자들에게 불맛이 잘 하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은 만물이 소생하지만, 병 또한 생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 이 자리를 불국토로 만들어봅시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ng@buddhapia.com)

누구나 바로 그날부터 기능력으로 만들어 주는 레이키(Raiki)법을 전수 받으십시오.

레이키법은 기공수련을 할 일이 없는 분도 그날부터 기능력으로 만들어 주는 세계 유일의 기능력자 (氣力者) 기공능력자 양성법입니다. 레이키법에 따르면 어떤 분이든 기공능력자나 그날부터 기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수전을 여러 해씩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수련의 우수 기공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레이키 에너지(氣=우주 생명에너지=빛=파동=자비=사랑)는 어떤 분에게든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생활환경을 포함하여 사람, 동물, 식물, 생명유체 등 형상에너지 물질, 광물 등 만물에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레이키 요법과 여타의 기공요법의 다른점

- ① 자기 자신의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셀프힐링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
- ② 원격 치료를 식은 죽 먹기 보듯 쉽게 할 수 있다.
- ③ 단 한 가지 치료방법으로 수 천 가지 병을 치료할 수 있어 치료 방법이 간소하다. 따라서 누구나 그날부터 치료법을 배울 수 있다.
- ④ 환자의 치료에 모두가 부각되어 있고, 환자의 사기를 받지 않으며, 치료의 기가 소모되지 않는다.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내(박희준)의 자격

저 박희준(朴熙俊)은 지난 20년간 기공, 정신세계 분야의 번역 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냈지만 기공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997년부터 레이키법을 만나 외국어의 여러 레이키스쿨에서 다채롭게 레이키법을 전수받은 결과 이제는 글자의 능력 전수 능력을 가진 세계에 손꼽히는 레이키 마스터가 되었습니다.이제는 이런 토대위에서 한국적 레이키법을 독자적으로 체계 세우는 일을 차근 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는 레이키법을 전수받기를 권합니다.

- ▶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 사업 종사자
- ▶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 소요 70만원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중로구 신문로 27가 89 피어선빌딩
지도자: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커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효림스님이 쓰는 이련스님

■묘운스님 ㉓

아무도 돌보는 이 없는 늙은 처사를 돌보겠다는 젊은 비구니가 나서자 모두가 굶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 우선 은사스님으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졌다. 정신나간 년이라는 말도 들었다. 또래의 도반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묘운은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행차때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에서도 "병든 사람이 있으면 모름지기 자비한 마음으로 지키고 간호하라(有病者 須慈心守護)"하지 않았던가. 그것뿐인가. 부처님께서는 병든 사람 돌보기를 자식이 부모 돌보듯 하라고 하셨다. 이런 대목을 가르칠 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는 정작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니가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은사스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대를 무조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당시로서는 대견을 줄만한 비구니스님은 드물었고 따라서 중요한 재원(才媛)이었다. 그런 만큼 주변 사람으로부터 기대를 받고 있었다. 그러한 스님이 늙고 병든 처사의 병수발을 들었다고 나섰으니 그것을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할 수만은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그리고 스님이, 그것도 여 스님이 어찌 처사의 병수발을 하겠다고 나

을 것 모두가 부족했다. 하지만 노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레도 부족한 것은 이곳 저곳에서 얻어다가 먹었다. 그 일을 몇 년이나 계속하다 보니 그만 병을 얻어 열반에 들고 말았다고 한다.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소변이 마려워 문밖으로 나왔다. 철우스님도 나를 따라 나왔다. 둘은 담 밑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시원하게 소변을 보았다. 마침 하늘에는 유난히 꼬리를 길게 하고 별뿔뿔 하나가 떨어지고 있었다.

수행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는 수행자가 돼보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아니 승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수행자인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승복을 벗었다고 수행자가 아닌 것도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승(僧)과 속(俗)을 초월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수십년 절집에서 부처님의 법을 추내고, 주지를 한다 무슨 벼슬을 한다 해서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에 기쁨이 흐르고 옷이 고급스러워지고, 고급 승용차에 운전기사가 급스급스 달려서 타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어주

승과 속 초월한 수행자 삶
아름다운 향기 느끼게 했다

선단 말인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절 집안의 관습이나 관행으로는 쉽게 승낙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처음 그 처사를 돌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그저 돌봄 사납다는 병자를 간호하겠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의외로 완강하게 반대하자 묘운은 아주 작심을 했다고 한다. 일종의 오기가 생긴 거라고 해야 할까. "진심으로 이 사람을 돌보자"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 처사를 데리고 절을 떠나 고향으로 갔다. 그때까지도 가난하기 이를데 없는 고향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부모님도 이제는 다 늙어 농사일을 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묘운은 여자의 몸으로 병든 처사와 늙은 부모를 돌보며 농사를 짓고 산 것이다. 그렇게 되자 스님이 되고 스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게 되었다. 바로 그 시점에 내가 지리산 암자에서 비오는 날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묘운은 그 암자에 잠시 다녀러 왔었던 모양이다.

결핵인가 하는 병을 앓았던 그 처사는 정성을 다해서 간호한 덕에 병이 나아사 몇년 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지만 묘운은 절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돌아가고자 했다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 비승비속으로 살아온 그에게 절집은 이제 더 그를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된 것, 병들고 늙은 노인들을 한 두 분씩 모셔다가 살았다. 그것이 10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가난한 실정에 힘입은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먹을 것, 입

그림·은병성

고 한다고 해서 큰 스님이 되는 것이 아니듯 그런 이를 수행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런 이의 옆에서 있으면 속세의 구린내가 난다. 마음까지 역겨워 지는 것이다.

반대로 소매골이 남아 실밥이 드러나고 얼굴에는 마른 버짐이 피었더라도 수행의 길을 옮겼을 때는 이에게서는 맑은 향기가 난다. 문향(聞香)이라는 말이 있다. 향기를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다는 말이 있는데 수행자에게서 나는 향기를 두고 하는 말일 듯 싶다. 그 향기란 코로 맡아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향기일 테니까.

그렇다. 문향이었던. 그 날 울진의 포교당 객실에서 밤이 늦도록 철우스님에게서 들은 그의 늙은 묘운의 이야기는 듣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게 했다. 방안 가득 향기가 배어 있고 그 향기는 오랫동안 내 몸에 배어 있었다. 아니다, 그 향기는 지금도 내 몸에 배어 있다. 좋은 향기란 한번 맡으면 몸에 배어 가는 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지, 그것도 아니다. 부처님의 향기, 옛 스님들의 향기는 시공(時空)을 초월해 지금까지도 우리가 맡을 수 있지 않은가.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기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귀중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면주사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줄다.

◎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아달대 사)그림, 龍자그림(수맥과 차단) 특별보시!

정품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佛字, 龍字그림 전수사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호퍼

한국명예문화원 후원(비영리)

사립신학, 가정불교,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상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주) (02)2242-0331, 2242-0255 (야) (02)2216-0307, (011)471-1996 E-mail : hbac.chollian.net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주문처 080-988-4774
소버저당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www.yasenginjinssook.co.kr